

## 大學 教育 과 圖書館

金 桂 淑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의 大部分은 圖書館學을 專門的으로 鍊修하시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實地經驗을 쌓으신 분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非專門인 本人은 그 專門方向에 대하여서는 論하지 아니하고 다만 大學教育의 經驗者로서 몇마디 할까합니다. 따라서 司書職으로서의 圖書館人으로서 大學圖書館을 보는것과는 달리 本人은 大學教育에 從事하는 사람의 面에서 大學圖書館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더우기 未備하면서도 急激한 變遷가운데서 發展하고 있는 우리나라 大學의 모습과 關聯시켜서 大學圖書館의 展望을 약간 그려볼까 합니다. 우리는 確實히 混亂하고도 어려운 「시츄에이썬」속에서도 大學教育의 發展을 돕기 위하여, 특히 大學教育計劃의 重大한 一部分으로서의 大學圖書館의 發展을 위하여 이와같이 全國 大學圖書館人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本人은 다음에 있을 專門인 研究와는 다른 方面에서 즉 위에서도 말씀드린것과 같이 大學教育의 面에서 大學圖書館의 將來를 展望하는 意味에서 여기에서는 다만 現代大學教育의 變遷과 大學圖書館과의 關係에 대하여서만 극히 參考的으로 간단히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 「大學教育의 變遷과 圖書館의 使命」

우리의 現代의 大學教育의 歷史는 극히 짧은 만큼, 그 制度의 面에 있어서나 教育內容에 있어서 또는 運營에 있어서 아직 確固한 基盤을 가지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意味에서 國公私立의 大學을 莫論하고 뚜렷한 教育의 特色을 가지고 있다고 斷言하기가 어렵지 아니한가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本人이 現在 우리나라의 大學을 보면 아니 世界的으로 비슷한 傾向도 있는것 같습니다만, 대체로 歷史가 오랜 大學일수록 歐羅巴式의 教育制度和 그 教育內容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그와 반대로 새로운 大學일수록 더우기 解放이후에 新設된 大學은 주로 美國式의 制度和 內容을 採擇하고 있는 것이 實情이라고도 하겠습니다. 특히 解放이후 우리나라는 教育制度를 美國式으로 採擇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當然한 結果인 것입니다. 그런 意味에서 우리나라 大學教育은 影響을 준데 따라서 아니 影響을 받는데 따라서 大學의 性格에도 多少

의 差異가 있는것을 發見할 수가 있는것 같기도 합니다.

더우기 解放이후에 있어서도 아직 日本의 많은 文化的 影響에 의하여 우리나라 大學에 있어서의 運營方式과 教育內容에 있어서도 實地로 그 影響을 많이 받고 있는것이 確實합니다. 특히 日本의 影響은 氾濫하는 日晝를 通하여 教育內容에 까지 미치고 있는듯 합니다. 이것은 大學教育에 있어서도 몇가지를 찾아 볼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日本도 從來의 歐羅巴式 教育에서 美國式教育으로 大轉換을 하였으며, 여기에 따라서 大學도 舊制大學과 新制大學으로 區別하였을뿐만 아니라 教育目標에 있어서나 內容에 있어서도 많은 變化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結果 日本에 있어서의 特殊한 變化가 곧 그대로 우리나라의 大學教育의 內容에 있어서까지도 反映되고 있는 奇現象을 나타내고 있는듯 합니다. 보다 質的인 面에 있어서 보다는 量的인 面에 있어서 즉 高等教育에 있어서도 教育의 機會均等이 強調됨으로써 大學은 「普通教育」의 中心이 되다시피 되었습니다. 誤解마십시오. 물론 大學은 「教育」의 最高의 殿堂입니다. 아니 最高學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大學教育은 知識의 習得에 그치는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세 知識을 위한 探究의 創造의活動과 함께 社會의 一員으로서의 「市民」으로서 또는 「自由人」으로서 人格을 完成시키도록 鍊磨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現代 大學教育에 있어서 強調된것이 「教養教育」입니다. 더우기 이자리는 바로 三年前에 처음으로 韓國의 民主市民教育의 發展을 위하여 새미나한 誕生地입니다. 教育的으로도 由緒깊은데 입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教養教育을 強調하는 나머지 專門的知識과 研究를 위한 面이 大學教育에서 극히 소홀히 되는 傾向이 있으며, 심지어는 大學生은 大學教育을 올바르게 받는데 있는것이 아니고 在籍만 하면 되는것으로까지 誤解하며, 大學當局者도 教育內容이나 人材育成에서는 벗어나서 教育은 물론이요 大學을 惡用하고 있는 傾向도 많다고 볼수 있습니다. 좋은 美國大學의 學生들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대하여 誤解하여서는 아니됩니다. 美國의 發展은 튼튼한 教育的 學究的 基盤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때

로는 大學은 이름 뿐이고 教育法에 明示된 研究, 教授 및 人格의 陶冶는 아랑곳도 없습니다. 그리고보니 大學圖書館은 전연 名色에 지내지 못하는 것이 實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니 여기에 모이신 많은 大學圖書館人들께서는 그 實情判斷에 있어서 贊同도 하실 것이며 혹은 反對도 하실것으로 믿습니다. 本人으로서는 「反對」가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圖書館數는 겨우 大學設置基準令의 制約을 받아서 억지로 數量을 채우는 實情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하여도 反對가 많으시기를 本人은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現在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大學教育의 完成을 위하여서는 圖書館을 重要視하여야 한다고 強調하는 時代는 닥쳐왔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責任은 대단히 重要합니다. 특히 專門職으로서의 司書人들은 이와같은 大學教育의 發展에 있어서 重大한 意味를 가진 大學圖書館發展을 위하여 積極的으로 研究하여 改善하는데에 萬全을 기하여야 할것입니다. 아니 現代에 있어서는 「教育과 圖書館의 인테그레이션」이 重要하기 때문에, 우리는 大學圖書館의 보다 나은 發展을 위하여서는 教授와 學生과 긴밀한 關係를 가지면서 圖書館學에 의한 大學圖書館의 發展의 方向으로 積極的으로 우리의 旗幟를 돌려야 할것으로 確信합니다. 우리는 大學圖書館의 참다운 業務를 充實히 遂行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大學圖書館人을 莫論하고 圖書館人은 그 大學에 있어서나 그社會에 있어서 길가의 돌맹이가 아니며 周旋의 存在가 아니고 當當한 成員으로서의 地位를 뚜렷하게 차지하고 있는만큼, 그 주어진 責任과 使命을 積極的으로 遂行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神聖한 任務일것입니다. 이제부터의 問題는 우리가 그 任務와 어떻게 잘 싸워 나가는가 하는데 있을것입니다. 古語의 「任重而道遠」은 우리의 當面問題이며, 우리의 길을

올바르게 選擇하는데에 「選擇의 自由」는 있을것이며, 그것을 잘 遂行할때에 우리가 바라는 大學教育의 發展은 勿論이요 大學圖書館의 前進은 실지로 具現될 것입니다.

새 發展은 自己反省과 自己批判에서 시작되며, 相互協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 같이 아는 것이지만 本人은 이자리에서 거듭 勇敢하게도 몇가지를 提議한 것입니다. 용서하십시오.

現代에 있어서 圖書館은 綜合大學의 中樞의 中心의 役割을 하고 있습니다. 더우기 大學의 目標은 明確합니다. ① 永遠한 眞理의 確保, ② 새 知識을 위한 探究, ③ 人類의 幸福을 위한 奉仕 등은 그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다만 知識을 위한 教育이 아니고 참다운 人間形成이 있어야합니다. 그러기때문에 大學圖書館은 이러한 大學의 目標達成을 위하여 그 뒷받침을 잘 하며 그 任務를 잘 遂行하여야 할 것입니다. 圖書館은 教室의 延長인 동시에 새 知識의 探究를 위한 實驗室로서의 任務를 積極的으로 完遂하여야 할것은 물론이요, 社會的 文化的 發展을 위한 奉仕에 있어서도 廣汎하게 寄與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大學圖書館은 知的向上과 研究資料提供에 그치지 아니하고 學生의 課外活動에 있어서도 많은 面을 담당하여야 하는 것인만큼, 또 그것을 위한 施設과 함께 적절한 指導가 있어야만 大學은 教育의 中心이되며 새로운 文化創造의 源泉이 될것입니다. 이 때에 大學은 참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現代에 있어서는 一般的으로 圖書館의 社會的 文化的 任務가 대단히 重要視되고 있으나, 특히 大學圖書館의 重大性은 우리 自身이 잘 알고 있으며 모두 體驗하고 있는만큼, 우리는 最善을 다하여 우리의 任務遂行에 邁進합시다. 보이지아니하며 社會에서는 優待는 받지못하여도 우리의 힘은 確實히 큰것입니다.

(發表者: 서울大學校 中央圖書館長)